

무안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농업 육성 '속도'

2017년부터 오크라 등 재배 지원 4억5000만원 투입 농업 확대 직영쇼핑몰 추석선물 기획전 연구회 조직 활성화 공동마케팅

무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농업 육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애플망고 재배 시설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열대 농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군 직영쇼핑몰을 통한 상품 연계 판매로 농가 판로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열대 농업 육성을 시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여 현재 애플망고, 체리, 오크라, 롱빈 등 아열대작물을 9개 사업체에서 재배하고 있다.

2022년에 지원받은 청계면 소재 '망고

랑 농장(대표 배삼열·배하나)'은 1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애플망고를 본격적으로 수확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수혜 농가로 선정된 '농업회사 농바름'에서는 3300㎡ 규모의 애플망고 하우스를 신축해 현재 약 1200주 애플망고 묘목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기 위해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애플망고 재배 시설 2개소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해 아열대 농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군 온라인 쇼핑몰인 '맛뜰무안몰'에 아열대작물을 추석 선물 대표상품으로 내세워 30%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기존의 시설 지원은 물론 애플망고 농가의 상호 정보



무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무안군 제공

교환과 과실의 고품질화를 위한 연구회를 조직·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과 브랜드 육성 등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해 농가

소득이 정착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농촌 왕진버스 운영 구강검진, 한방진료 등

영암군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일부터 미암을 시작으로 서영암농협 및 남주농협과 총 4일간 덕진·도포·학산·미암의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구강검진, 치매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검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동신대 광주한방병원과 협력해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완도군,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고질적인 체납자 강력 대응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현철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12개 읍·면장 및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 원인 분석과 향후 조치 계획 등 실질적인 지방 세입 징수 확대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과감한 체납 정리 보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단행하면서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 연도 이월 최소화를 위한 현 년도 집중 징수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징수율 제고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 지원을 배제하고, 관허 사업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와 함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현철 부군수는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 세입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상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며 "체납액 감소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 관계자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달 27일 관내 병원, 대중목욕탕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진도군이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병원, 대중목욕탕, 공연장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관공서,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수도꼭지,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레지오넬라증은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구분되며 감염되면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이 나타난다.

'폐렴형'일 경우 작란이나 사망, 신부

전까지 유발할 수 있어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면역저하자, 암 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도군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된다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물 소비량과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탑수와 저수조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는 군민께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추석연휴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해남군, 운영시간 1시간 연장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14~18일 동안 정상 운영한다. 다만 추석 당일 화장업무는 중단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봉안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해 추모를 위해 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추모공원 전 직원 비상근무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날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맞춰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개원했다. 지금까지 화장 1만7359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5691건 등 서남권 장례문화를 혁신하는 선도적인 장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이달 11~13일 섬 맨드라미 축제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3일간 증도면 병풍도에서 '정열의 맨드라미의 섬 병풍도'라는 주제로 '2024 섬 맨드라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17.9ha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444만본 1억4000만 송이의 닭벼슬모양, 촛불모양, 여우꼬리모양 등 형형색색 맨드라미가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맨드라미 사진전, 병풍도 사진관 등 작은 문화행사와 워킹플라야데이, 카페, 포토존, 푸드존, 쉼터 등 편의시설 및 먹거리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다.

병풍도 맨드라미는 식재 시기를 조절해 9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첫서리가 올 때까지 피는 것이 특징으로 신안군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병풍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 드넓은 갯벌이 어우러진 맨드라미정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모집

1차 10월4일 마감

무안군은 오는 10월30일 목포대학교 남약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내 컨벤션 홀에서 개최 예정인 '2024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하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무안군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인력개발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체·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현장채용관 15개 사(간접참여 15개)와 함께 취업컨설팅, 입사지원서 컨설팅,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사진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

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무안군을 비롯하여 전남 서남권 소재기업 중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확정된 기업은 기업별 채용관을 배정받아 참가한 구직자와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4일까지이며 신청기업 수에 따라 10월1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계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간 만남을 통해 침체한 고용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안군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